

#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Learning Commitment, And Time Management Behavior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of Health Students

Young-Mi C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U시의 보건계열 대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은 대학생활 적응에 양의 상관을 보여주었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전공만족도와 시간관리 행동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학업몰입을 높일 수 있는 대학환경의 개선과 보완,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과 같은 제도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llege life adaptation that is affected by major satisfaction, learning commitment, and time management behavior of the college of Health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2 College of Health students at U city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major satisfaction, learning commitment, and time management behavior of College of Health students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college life adaptation, and those factors affected college life adap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d apply the programs to enhance the college life adaptation for the college of Health students, and the supports such as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teaching method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learning commitment.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learning commitment, time management behavior, college life adaptation,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Cho(choyoung23@ch.ac.kr)

Received April 28,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May 18, 2020

Published July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의 학과선택 기준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의 편이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 특히 보건의료의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타 전공에 비해 보건의료의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1]. 그러나 많은 보건의료 대학생들은 입학 후 국가고시를 위한 많은 학습량과 임상실습,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과활동 및 봉사과 같은 학습으로 인한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고[2] 이러한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이나 자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3]. 이러한 학생들의 극단적인 학업중단의 선택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은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욕구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이며,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이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4].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긍정적이라는 연구는[5]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의 적응에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임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대로 전공만족도가 낮으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대학생활에서 경험해야 하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6]. 그러므로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몰입도는 학습목표와 학습경험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조화로우면서 이룸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여 자신의 학습경험과의 최적의 상호작용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학습을 수행하는 상태이다[7]. 학업몰입도가 높은 사람들은 학업의 중단이 낮으며 학습 성과와 학업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8]. 학업몰입은 학업결과와 관계가 있고 대학생들의 학업몰입을 얼마나 큰가에 따라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삶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9] 보건의료 대학생의 학업몰입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간관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행동으로[10] 시간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나 시간관리 실패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응급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났을 경우에도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대학생의 경우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보건의료 학생들의 경우 과중한 학습량의 부담으로 시간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며 시간관리를 잘 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요구를 만족하게 하려고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행동으로 변화와 도전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과정을 말하는데[11]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은 학교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12]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중요한 고려 사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적이고 끝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13].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대학생활의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공업이나 사회실무 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보다 낮게 나타나 [12] 보건의료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전공만족, 학업몰입, 시간관리 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보건계열 대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자는 U시에 소재한 C대학의 보건계열 대학 재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휴학생은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그리고 동의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수거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를 3개 지정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수는 107명이었고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482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에서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혜숙[4]이 제작한 교육만족 5개 문항, 관계만족 4개 문항, 일반만족 5개 문항, 인식만족 7개 문항, 학교만족 7개 문항으로 전공만족도에 관련된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56이었다.

#### 2.3.2 학업몰입도

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와 Bakker[14]가 개발한 것을 이자영과 이상민[15]이 한국인에 맞게 수정·보완한 한국형 학업몰입척도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5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7이었다.

#### 2.3.3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에서의 시간관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채화영과 이기영[16]이 개발한 3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8이었다.

#### 2.3.4 대학생활 적응도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정은이와 박용한[1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 관계 4개 문항, 학업 활동 6개 문항, 개인 심리 6개 문항, 진로 준비 3개 문항으로 대학생활 적응도에 관련된 총 1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6이었다.

###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의 정도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분석을 하였다.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3.2%(401명)으로 남자의 16.8%(81명)보다 많았다. 학년의 분포를 보면 1학년에 서부터 4학년 까지 각각 43.2%, 28.2%, 24.3%, 4.4%이었다. 학과는 보건계열로 간호학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 안경광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로 구성되었으며, 보건계열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의 용이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자발적 동기가 31.7%였다. 성적의 상중하 범위에서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6.8%(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가 34.6%(167명), 상은 8.5%(41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본인의 학점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Table 1.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Learning Commitment, And Time Management Behavior, College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82)

		N	%	Major Satisfaction	t or F(p), Sheffe	Learning Commitment	t or F(p), Sheffe	Time Management Behavior	t or F(p), Sheffe	College life Adaptation	t or F(p), Sheffe
				M±SD		M±SD		M±SD		M±SD	
Gender	male	81	16.8	3.828±0.662	0.076 (0.783)	3.196±0.729	0.833 (0.362)	3.272±0.381	0.115 (0.735)	3.513±0.646	3.146 (0.077)
	female	401	83.2	3.807±0.615		3.107±0.615		3.287±0.38		3.365±0.693	
school of year	freshman	208	43.2	3.743±0.582	10.473 (<.001)	3.025±0.713	11.573 (<.001)	3.266±0.355	4.278 (0.005)	3.336±0.601	14 (<.001)
	sophomore	136	28.2	3.718±0.576	a,b,d<c	2.958±0.711	a,b,d<c	3.224±0.368		3.213±0.605	a,b,d<c
	junior	117	24.2	4.078±0.686		3.480±0.937		3.389±0.441		3.722±0.808	
	senior	21	4.4	3.592±0.51		3.148±0.634		3.285±0.32		3.220±0.658	
Major	nursing	90	18.7	3.719±0.506	7.805 (<.001)	3.107±0.724	10.169 (<.001)	3.247±0.385	2.406 (0.027)	3.303±0.635	7.431 (<.001)
	dental hygiene	244	50.7	3.806±0.599	e<f,g	3.028±0.762	e<f	3.274±0.373	e<c	3.331±0.658	a,b,d,e,g<c
	occupational therapy	30	6.2	4.265±0.770	a,d<c	4.018±0.821	a,bd,g<c	3.476±0.438		4.101±0.851	
	emergency rescue	29	6.0	3.760±0.599		3.069±0.825		3.266±0.296		3.453±0.611	
	optics	30	6.2	3.327±0.669		2.787±0.662		3.162±0.348		3.229±0.513	
	radiology	29	6.0	3.947±0.647		3.523±0.752		3.339±0.438		3.624±0.794	
	physical therapy	30	6.2	4.078±0.512		3.035±0.704		3.385±0.414		3.289±0.581	
Reasons for choice the major	easy to find jobs	235	48.8	3.786±0.603	9.05 (<.001)	3.086±0.843	1.295 (0.271)	3.278±0.399	3.109 (0.015)	3.367±0.726	3.518 (0.008)
	due to scores	30	6.2	3.333±0.609		2.922±0.848		3.133±0.393		3.136±0.678	
	recommendation from others	63	13.1	3.721±0.602		3.112±0.652		3.213±0.327		3.246±0.568	
	willing	154	31.9	3.985±0.601		3.223±0.757		3.355±0.369		3.533±0.648	
Grade	high	41	8.6	4.118±0.571	14.462 (<.001)	3.623±0.751	17.2 (<.001)	3.455±0.382	8.626 (<.001)	3.883±0.738	20.786 (<.001)
	middle	274	56.8	3.876±0.623	a>b>c	3.188±0.822	a>b>c	3.309±0.399	a>b,c	3.444±0.720	a>b>c
	low	167	34.6	3.628±0.584		2.891±0.679		3.203±0.341		3.18±0.523	
grade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57	11.8	3.648±0.635	6.28 (<.001)	2.904±0.769	8.185 (<.001)	3.206±0.337	5.037 (0.001)	3.170±0.602	10.925 (<.001)
	dissatisfaction	135	28.0	3.665±0.587	a,b<e	2.970±0.712	a,b,c,d<e	3.210±0.355	a,b<e	3.278±0.592	a,b,c,d<e
	so so	170	35.3	3.850±0.625		3.153±0.825		3.292±0.404		3.367±0.702	
	satisfaction	98	20.3	3.964±0.598		3.236±0.754		3.375±0.364		3.541±0.704	
	very satisfaction	22	4.6	4.142±0.595		3.869±0.791		3.494±0.462		4.138±0.664	
study time	under 30min	130	27.0	3.660±0.580	4.154 (<.001)	2.884±0.716	6.06 (<.001)	3.167±0.328	4.542 (<.001)	3.146±0.586	6.365 (<.001)
	30min-1hour	129	26.8	3.771±0.576		3.024±0.749	a<g	3.275±0.380	a<g	3.374±0.610	a<f,g
	1 hour-1&1/2hour	88	18.3	3.851±0.604		3.175±0.816		3.337±0.381		3.498±0.707	
	1&1/2hour-2hours	53	11.0	3.800±0.703		3.290±0.780		3.301±0.362		3.398±0.771	
	2hours-2&1/2hours	21	4.3	4.031±0.594		3.497±0.687		3.361±0.429		3.689±0.622	
	2&1/2hours-3hours	16	3.3	3.988±0.546		3.355±0.75406		3.357±0.349		3.434±0.556	

	over3hours	45	9.3	4.127±0.710		3.530±0.914		3.472±0.472		3.761±0.843
high school	comprehensive high	447	92.8	3.812±0.626	0.461 (0.71)	3.812±0.796	0.111 (0.953)	3.294±0.38	2.024 (0.11)	3.391±0.693 (0.042) (0.989)
	vocational high	33	6.8	3.770±0.592		3.770±0.815		3.153±0.354		3.374±0.628
	GED	2	0.4	3.906±0		3.906±0		3.031±0		3.263±0
type of admission	early admission	447	92.7	3.798±0.62	2.255 (0.108)	3.087±0.779	12.212(0.01)	3.276±0.383	2.92 (0.088)	3.366±0.686 (7.145) (0.008)
	regular admission	35	7.3	3.974±0.643		3.569±0.869		3.392±0.393		3.687±0.634
accommodation type	with family	275	57.1	3.725±0.604	5.511 (<.001)	3.009±0.705	6.153 (<.001)	3.229±0.373	5.592 (<.001)	3.288±0.632 (4.363) (0.002)
	dormitory	72	14.9	4.156±0.442		3.847±0.373		3.558±0.632		3.699±0.750
	self	135	8	3.956±0.657		3.285±0.898		3.367±0.383		3.550±0.741

35.3%(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8%(135명), 그리고 만족이 20.3%(98명)의 순이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습시간은 하루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130명)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26.8%(129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신고등학교는 92.7%(447명)의 학생이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입학전형은 수시가 447명(92.7%)으로 정시의 35명(7.3%)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거의 형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보건계열 학생의 수가 275명(57.1%)로 가장 많았다. Table 1

### 3.2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의 정도

대상자들이 인지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11±0.622점이었고, 학업몰입도는 3.122±0.795점, 시간관리 행동은 3.285±0.384점,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는 3.39±0.68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Major Satisfaction, Learning Commitment, Time Management Behavior, College Life Adaptation (N=482)

Variables	M±SD	Ranges
Major Satisfaction	3.811±0.622	1-5
Learning Commitment	3.122±0.795	1-5
Time Management Behavior	3.285±0.384	1-5
College Life Adaptation	3.39±0.687	1-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는 성별 (t=3.146 p=0.077), 출신 고등학교(F=0.042, p=0.989),

그리고 입학전형(t=7.145, p=0.008)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F=14, p<0.001), 학과(F=7.431, p<0.001), 학과선택의 이유(F=3.518, p=0.008), 성적(F=20.786, p<0.001), 자신의 학점만족의 정도(F=10.925, p<0.001), 학습시간(F=6.365, p<.001), 주거형태(F=4.363, p=0.002)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의 경우 고학년이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대학생활 적응도(F=14, p<.001)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과별로 보면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F=7.431, p<0.001) 모든 변수에서 그 정도가 가장 높았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과선택의 이유 중 자발적으로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F=3.518, p=0.008)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보여주었고, 이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에도 상위에 속한 학생들이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 모든 변수에서 그 정도가 가장 높았고 '중'그룹과 '하'그룹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20.786, p<0.001). 본인의 학점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에 학점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F=10.925, p<.001)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습시간에 대한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학습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F=6.365, p<.001)의 정도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주거형태의 경우 하숙이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 그리고 대학

생활 적응도( $F=4.363, p=0.002$ ) 모든 변수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able 1

### 3.4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행동, 대학생 활적응도의 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도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r=.625, p<0.001$ ), 학업몰입도( $r=.737, p<0.001$ ), 그리고 시간관리 행동( $r=.621, p<0.001$ )에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482)

	Major Satisfaction r(p)	Learning Commitment r(p)	Time Management Behavior r(p)	College life Adaptation r(p)
Major Satisfaction	1			
Learning Commitment	.559** ( $<.001$ )	1		
Time Management Behavior	.563** ( $<.001$ )	.546** ( $<.001$ )	1	
College life Adaptation	.625** ( $<.001$ )	.737** ( $<.001$ )	.621** ( $<.001$ )	1

### 3.5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Watson통계량은 1.99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593-0.605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은 1.641-1.685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만족, 학업몰입, 시간관리행동에 의하여 64% 설명되었으며( $F=284.012, p<0.001$ ) 회귀분석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 $\beta=0.224, p<0.001$ ) 학업몰입( $\beta=0.486, p<0.001$ ), 시간관리 행동( $\beta=0.23, p<0.001$ )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B	SE	$\beta$	t	p	R2	Adj. R2	F(p)
(Constant)	-0.213	0.167		-1.273	0.204			
Major Satisfaction	0.247	0.039	0.224	6.279	$<.001$	0.638	0.638	284.012 ( $<.001$ )
Learning Commitment	0.42	0.03	0.486	13.834	$<.001$			
Time Management Behavior	0.411	0.063	0.23	6.53	$<.001$			

## 4. 논의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정도는  $3.811 \pm 0.622$ 점으로 중간을 넘는 수준이었고, 저학년 보다 고학년에서, 그리고 성적은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전공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윤하와 채민정[20]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전미진과 노은경[2]의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의 전공만족도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도정임[21], 오지현[22],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23]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며, 전공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뚜렷한 취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과 이해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주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이러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신입생 이후 지속적인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몰입의 정도는  $3.122 \pm 0.795$ 점으로 나타났다, 학년, 학과, 성적, 본인의 학점에 대한 만족도, 학습시간, 입학전형의 방식, 그리고 주거의 형태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이 있으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업몰입은 대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업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적응을 하게 된다는 노수림과 배성아[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 몰입도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는다고 하였고[13],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학업 몰입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개인의 수준과 성향에 따른 다양한 학업 몰입의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방안으로는 교수자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의 몰입을 위해 학습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에 흥미를 줄 수 있는 학습방법과 교수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에게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이라 하였으므로 [13],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학업의 동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의지의 장려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업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대학환경의 개선과 보완,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5] 등과 같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시간관리 행동의 정도는  $3.285 \pm 0.384$ 점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시간관리 행동은 학생들의 학년, 학과, 학과선택의 이유, 성적, 학점만족의 정도, 학습시간, 그리고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며 이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관리 행동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이 있으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시간관리 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있어 더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적응을 보인다고 하여[24]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시간관리는 학습에 있어 목표를 정하여 수행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하고 사용하게 되며 학습량이 방대하고 학습시간의 부족을 느끼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학습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3.39 \pm 0.687$ 점이었고 학년, 학과, 학과선택의 이유, 성적, 자신의 학점만족의 정도, 학습시간,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혜윤[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은 성적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학년의 경우 고학년이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대학생활 적응도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4학년의 경우 3학년보다 점수가 감소한 것은 본 대상자들은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4학년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만 해당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으로 가면서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전공에 대한 노력이 많아지고,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건계열의 학과들이 취업의 스트레스에서 다른 전공에 비해 낮음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 출신 고등학교, 그리고 입학전형은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미현과 배상목[19]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이 다르며 수시전형 학생들보다 정시전형의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공만족, 학업몰입, 그리고 시간관리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고, 학업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시간의 분배, 사용,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수행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학업몰입도, 시간관리 행동이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이 있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많은 보건계열의 학과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이탈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전공만족도와 학업 몰입도를 높이고, 시간관리 행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제한점도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의 보건계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건계열 학과별, 학년별 대상자의 수가 표본 모집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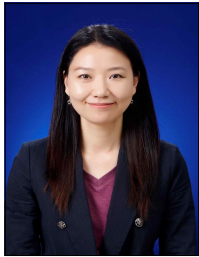
- [1] G. O. Noh. (2017).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205-213.  
DOI : <http://dx.doi.org.openlink.khu.ac.kr:8080/10.5977/jkasne.2017.23.2.205>
- [2] M. J. Jun & E. K. Noh. (2018).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33-442.  
DOI : 10.15207/JKCS.2018.9.4.433
- [3] H. J. Jung & H. I. Chung. (2012).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3), 188-196.  
DOI : G704-001695.2012.21.3.006
- [4]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5] Y. M. Cho & J. K. Kim (2019). The Influence of Sense of Humor by Instructors and Learning Motivation up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9(1), 350-358.  
DOI : 10.5392/JKCA.2019.19.01.350
- [6] J. H. Lee & H. J. Jang (2018). Influence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n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35(2), 454-462.  
DOI : <https://doi.org/10.12925/jkocs.2018.35.2.454>
- [7] J. H. Kim (2003).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nts' learning flow in adult learning programs. Doctori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8] S. M. Myoung & H. K. Lee (2015). A Relationship of Learning flow and Dropout in Local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Adap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6), 21-28.  
DOI : 10.14400/JDC.2016.14.12.1
- [9] S. R. Noh & S. A. Bea (2014).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343-362.
- [10] Britton, B. K., & Tesser, A. (1991). Effects of time management practices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405-410.
- [11] E. K. Kwon (201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 Work Values,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6), 171-179.  
DOI : G704-002010.2012.10.6.036
- [12] M. J. Park., Y. R. Ham & D. N. Oh (2012).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2(4), 327-337.  
DOI : 10.5392/JKCA.2012.12.04.327
- [13] A. K. Chung., J. S. Kim. & J. H. Kim (2013). The effects of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learning persistenc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6), 11-18.  
DOI : 10.18108/jeer.2013.16.6.11
- [14] Schaufeli, W.B., Salanova, M., Gonzalez-RomA V., & Bakker, A.(2002). The measurement of burnout and engag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ents*, 3(-), 71-92.
- [15] J. Y. Lee & S. M. Lee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KA EI).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131-147.  
DOI : 10.17927/tkjems.2012.24.1.131
- [16] H. Y. Chae & K. Y. Lee (2005). A Typology on Time Management Behaviors of Work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1), 211-224.
- [17]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DOI : 10.17927/tkjems.2009.21.2.69
- [18] H. Y. Jung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59-268.  
DOI : 10.14400/JDC.2016.14.7.259
- [19] M. H. Han & S. M. Bae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Adap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mission Type in One Nursing Schoo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1), 46-53.  
DOI : <http://dx.doi.org.openlink.khu.ac.kr:8080/10.5977/jkasne.2015.21.1.46>
- [20] Y. H. Choi & M. J. Chae (2018).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419-432.  
DOI : 10.35873/ajmahs.2018.8.8.040
- [21] J. N. Do (2017).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on Their School Life.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4(4), 69-82.
- [22]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23] G. Y. Lee., T. W. Choi & Y. S. Lee (2015).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es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6(2), 197-209.
- [24] N. Y. Park & Y. H. Lee (2019).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luster of Time Perspective and Time Manag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411-433.  
DOI : 10.14400/JDC.2016.14.12.1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Master's of Nursing Science)
- 2019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한방간호, 간호교육
- E-Mail : choyoung23@ch.ac.kr